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7.00원 하락한 1,218.20원에 마감
------	------------------------------

29일 환율은 전일대비 7.00원 하락한 1,218.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20원 하락한 1,223.0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리스크온 분위기를 반영한 환율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1,220원대 하향 돌파하였다. 증시 호조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영향 및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대 소식에 낙폭을 확대하여 1,216.90원까지 저점을 낮춘 이후 1,210원 후반 박스권에서 등락하며 점차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 후반 롱포지션 추가 정리로 낙폭을 키우며 전일대비 7.00원 하락한 1,218.2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143.41이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23.00	1223.00	1216.90	1218.20	1218.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45.48	1145.52	1141.03	1143.07	
금일 전망	미중 갈등 재개 우려에 1,220원대 중후반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1,220원대 중후반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18.20원) 대비 6.05원 오른 1,223.75원에 최종호가 됐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 우려로 환율 상승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코로나19의 책임을 물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보복조치를 마련하고 대중 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맞대응으로 다시 양국은 관세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위험선호심리 훼손되며 환율 상승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이 (-)4.8%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점 또한 위험선호심리 훼손시키며 환율 상승 압력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 물량 및 1,230원대에서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22.00 ~ 123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357.91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05원 ↑ ■ 美 다우지수 : 23723.69, -622.03p(-2.5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9.7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93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